

# 할아버지의 새 자전거

김은지

할아버지께 새 자전거가 생겼다.  
동네방네 칩 튀기며 자랑을 하셨다.  
“우리 딸내미가 사 준 거야.”  
바퀴도 튼튼  
벨소리도 또랑또랑  
우리 딸이 아주 잘 골랐다면  
이 집 저 집 찾아가며  
자랑이 끝이 없다.

자전거를 자랑하는 건지  
엄마를 자랑하는 건지  
할아버지의 자랑 속에는  
한 마디 한 마디  
엄마의 칭찬이 빠지지 않는다.

새 자전거 타고 밭에 가시는  
할아버지의 신나는 모습이  
새 장난감을 받은 내 사촌 동생 닮았다.

“저리 좋아하시는데 진작 사 드릴걸.”  
엄마의 눈이 할아버지를 쫓아간다.